朝鮮日報 夕刊
號二十第刊夕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炯元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電話光化門 (代表) 二一〇〇番 振替京城 九四八七八番
〈購讀料〉 一個月 金一圓 三個月 金二圓九十錢 六個月 金五圓八十錢 一個年 金十一圓五十錢 (郵稅不要)
〈廣告料〉 普通一行 金一圓 特別 一行 金二圓 以上

社說

三南水害救濟金品에 際하야

二千三百萬兄弟에 感謝함

一

지난 七月廿二日을 前後하야 嶺南, 全羅, 忠淸의 三南一帶에 大洪水가 襲來하야 數百의 生命과 數千萬의 財産이 喪失되고 四十萬의 災民이 塗炭에 빠진것은 이미 天下의 周知하는바다. 이에 對하야 或은 海內로부터 或은 海外로부터 或은 老人으로부터 或은 幼兒로부터, 或은 勞働者로부터, 或은 家庭婦人으로부터, 或은 宗敎團體로부터 或은 學校로부터, 地域과 性과 階級을 超越하야 온 天下 朝鮮人兄弟로부터 뜨거운 同情의 義捐金品이 本社에 還至한것은 感謝를 마지안는바이다. 過去四千年間의 朝鮮民族生活史上 或은 今次의 三南水害以上으로 一層 規模가 厖大하고 一層 災禍가 慘酷한 일이 잇섯슬지는 모른다. 그러나 今次의 三南水害에 對해서와가티 全朝鮮人民이 總動員하야 物質的으로 精神的으로 救濟한일은 업섯슬것이다. 이點으로 보면 今次의 三南水害救濟事業은 朝鮮有史以來 처음되는 全社會的 救濟事業이라할 것이다.

二

아즉 救濟金品은 還至하는中에 잇거니와 九月三十日末現在 本社에서 接受整理한 義捐金品은 金錢으로 三萬六千五百餘圓 物品으로 七萬九千五百餘點이다. 그리고 이것을 出捐한 人員數로 본다면 大略 個人으로 七十萬人, 團體로 一千을 過超한다는것으로 團體의 人員을 全部 個人으로 換算하면 無慮 百萬에 가까운 數字다. 百萬人 이라하면 朝鮮人人口 二千三百萬人에 對하야 二十三分의 一이 이 事業에 動員되엿을것이요, 全戶數四百萬戶에 對하야 四戶에 一人이 이 事業에 動員되엿슴이다. 이것은 朝鮮人兄弟가 兄弟의 災禍에 當하야 兄弟를 救하고 助하겟다는 純正한 至誠에서 나온 汗血의 結晶인 同時에, 本社가 二千三百萬兄弟의 信賴와 支持미테 社會의 公器가 되고 兄弟의 公僕이 되라하는 至誠에 符合한것으로 거듭하야 感謝치 아니치못하겟다.

三

本社는 本來부터 社會의 公器임과 民衆의 公僕임을 自任한지라 그 使命을 다하기위하야 三南水災가 이러나자 特派員을 派遣하야 水害狀況을 迅速히 報道하고 紙力이 許하는限 最大의 努力을 기울려 救濟金品을 災地에 보내거니와 兄弟들의 이 가튼 至誠의 義捐이 오는 本社에 對한 信賴, 支持, 激勵가 날마다 노파가매 本社는 一層 그 使命의 重함을 깨닷고 誠意잇게 報道와 救濟에 努力하얏다. 或은 災地에 特派員을 派遣하야 災地狀況의 慘狀, 災民의 慰問 救金品援下配給을 하며, 或은 消

給하얏스며, 或은 醫療班을 組織하야 災地의 病者를 治療하얏스며, 或은 社會公衆에 訴하야 義捐金品募集에 努力하얏다. 이 報道, 救濟事業에 動員된 人數를 計算하면 實로 延人員 一千三百人을 超越하고, 使用된 金錢을 따진다면 號外, 寫眞畫報費 等에 資金을 除하고 萬餘圓을 算한다. 이것은 오로지 我社의 社會的 使命을 다하고, 兄弟의 信賴, 支援, 激勵에 萬一의 報答하라는 衷心에서 나온 犧牲이 아니고는 될수업다.

四

當局의 指定한 期間關係로 九月三十日로써 마감을 지으라한다. 아즉 出捐할 意思를 가지고도 手續上 其他關係로 뒤느진 兄弟는 昨紙社告에 依하야 從速 寄送하심을 바라는바이나 今番 이 水災에 多大한 義捐을 해주신 兄弟姉妹에게 災民을 代表하야 無限한 感謝의 意를 表하고저 한다. 今後 如斯한 災害가 다시 업기를 心禱하는바이나 萬一의 不幸한 境遇라도 이러한 災難이 다시 올때엔 今番의 산 試鍊에 鑑하고 悲苦한 兄弟에게 原則에 基하야 一層더 忠實하게 寄與하라한다. 朝鮮人의 幸福에

米作第一回豫想

比前年二割四分의 減收

未曾有의 大凶作

【電通東京電話】 九月二十日現在 今年米作第一回豫想收穫高는 別項과 如히 北海道外十三縣에 對하야 二十九日農林省에서 發表하엿는데 依에 依하면 東北地方의 豫想收穫高는 前年에 比하야 二割四分의 大減收로 五個年平均에 比하드라도 一割四分의 減收가 되어 이다 特히 其中 가장 減收가 甚한것은 冷水害를 當한 岩手縣으로 此는 前五個年平均에 比하면 四割四分의 減收요 前年에 比하면 半作以下이다 同樣으로 青森縣도 前五個年平均에 比하야 四割二分의 大減收로 亦是昨年의 半作以下로되여 잇다 또 旱害地方인 鹿兒島縣은 前五個年에 比하야 三割九分의 大減收를 示하고잇다 그리고 其中京都, 奈良, 和歌山의 四府縣은 今回의 關西風水害地方으로 今日颱風에 依하야 減收狀況은 豫想되지 안음으로 이 被害가 判明되면 더욱 減收率은 크리라고 豫想되다 따라 十月三十一日現在에 議會될 第二回豫想收穫高는 더욱 大凶作이 豫想되리라고 觀測되다 第一回豫想收穫高는 十月二日이나 三日頃에 全國的 發表가 終了될 터인데 第一回發表로 써 類推하면 바야흐로 全收穫은 五千五百萬石을 끼르리라는 것은 確實하다고 보임으로 未曾有의 大凶作은 免치못하리라고 觀測된다

愛國婦人會總會

愛國婦人會 朝鮮本部 第六回總會는 三十日午前十一時부터 總督府內에서 總裁東伏見宮 大妃殿下의 台臨下에 開催되엇는데 總裁宮殿下의 御諭旨가 게신後 朝鮮本部長今井田爲子氏의 寒暄, 愛國婦人會長本野久子氏, 宇垣總督, 植田軍司令官의 祝辭가 잇섯다.

風水災에 依한 水稻減收率

農林省技師의 報告

【電通東京電話】 關西地方의 風水害로 水稻의 被害는 擴大하리라고 豫想되는바 아직 正確한 調査가 업슴으로 確實한 數는 判明되지 안으나 過般 農林省으로부터 實地調査를 行하기 爲하야 現場에 派遣된 藤谷技師의 報告에 依하면 平年作에 比하야 大體左와如한 狀況으로되여잇다

大阪府三割減, 兵庫縣二割減 和歌山縣一割五分減, 岡山縣一減七分減, 奈良縣一割減, 京都府一割七分減, 滋賀縣二割五分減, 岐阜縣二割二九分減, 三重縣一割三分減, 愛知縣二割二分減

은 朝鮮總督府의 水害復興豫算 四百十九萬五千圓 外에 臺灣總督府에서도 風水害復舊豫算을 提出하여 오리라고 豫想된다

華盛頓條約의 廢棄

臨時議會前通告?

議會서 國論不統一暴露念慮

即時斷行論軍部內에 擡頭

【電通東京電話】 政府는 드대여 臨時議會를 召集케 되엿바 이 臨時議會에서 絶對多數黨인 政友會는 風水害救濟對策以外에 在滿機構改革及海軍軍縮對策에도 質問을 試하려는 氣勢를 보이고 就中海軍軍縮의 國運을 賭할 現下의 重大國務가 된 見地에서 豫備交涉對策과 華盛頓條約廢棄通告問題를 붓잡어 徹底的으로 政府의 所信을 質問하고 國論統一으로 僞하야 政府의 軍縮對策을 鮮明히 할 策에 나갈 것이 明白케되엿슴으로 政友會가 萬若臨時議會에 召集前에 華府條約廢棄通告를 斷行치 안으면 議會에서 痛烈한 質問戰이 展開되여 議論沸騰結果 如何한 事態를 發生할는지 도 알수업고 이래서는 國論의 不統一을 暴露하야 國民들 그 歸趨에 迷惑케 하고 對外的으로 非常한 不利를 招來케 될것이라 하야 最近 도 軍部內에 華府條約廢棄通告即時斷行論이 擡頭하여 왓다 그리고 華盛頓條約廢棄通告에 關하야는 去七月閣議에서 十月下旬再開될 豫備交涉에 對策提出과 同時에 行할 것으로 廟議決定을 하고 잇슴으로 도 支障업는 限는 저도 十一月上旬까지 廢棄通告에 關한 그 切手續을 完了할 터이다 그런데 代表部의 準備折衝如何에 依하야는 成案이 느저저 臨時議會와 衝突될 廢棄가 잇슴으로 大角海相은 山本代表가 英國에 到着할 十月十六日 以後의 狀勢를 보는 後 境遇에 依하야는 岡田首相과 會見하고 臨時議會召集前에 華盛頓條約廢棄通告에 關한 一切手續을 完了하고 議會에서 總理大臣, 外務大臣, 海軍大臣으로부터 積極的으로 經過를 報告코저 進言하고 岡田首相의 諒解를 求한後, 廣田外相과 協議하고 松平, 山本兩代表에 對하야 速히 準備를 整備하야 交涉을 開始하고 對策捷出과 華府條約廢棄通告의 時期를 그르치지 아느도록 努力하라는 意味의 訓令을 發하고 晩을 하야도 十一月上旬까지 可及的 速히 華盛頓條約廢棄通告를 斷行하려는 決意를 有하고 情勢推移를 警戒하야 萬般遺漏업기를 期하고잇다

臨時議會와 各派態度

貴院各派

救濟豫算增額要求

兩院通過는 確實

米穀根本對策樹立은 不能

【東京電話聯合】 政府는 今回臨時議會의 召集은 希望하지 안엇슴에도 不拘하고 關西方面의 暴風雨被害로 因하야 不得已 召集하게되엇는데 政友會의 農村對策을 爲한 召集要求라고 하면 에 應하지 안엇슬 것이나 作成되지 못하엿 다는 理由로 提案치 안흘것은 明瞭하다 臨時議會에서 關西方面의 暴風雨 九州의 旱害 東北地方의 冷害 北陸地方의 水害等의 災害救濟事業은 貴族院에서는 多少意見陳述이 잇스나 衆議院에서는 通過될 것이 確實하다 하고 人氣를 爲하야 政府에서 提案한 救濟策以上으로 還 好意를 어드려는 方針에서 此等救濟豫算의 增額要求는 잇드라도 大體로 通過할 것은 確實할것이다 政友會가 前議會에서 農村救濟의 根本策을 樹立하야 臨時議會에 提案하라고 主張하야 議決된 米穀의 根本對策이 成立되여잇슴으로 此를 對하야도 期待되고 잇슴으로 臨時議會의 召集을 政府에 迫하고 政府의 資力과 意欲을 고칠것이다 此에 對하야 政府는 和戰兩樣의 伏線을 펴리라고 豫測되는 바 結局政府가 短時日間에 廣汎한 米穀根本對策의 樹立은 事實上 不可能하고 通常議會에서 相當히 完成된것을 提出하기로하고 臨時議會에는 提案하게되지 안흘것이다

各派態度

政府深刻注意

【東京電話聯合】 臨時議會는 政府가 政友會와의 間에 政治工作을 進行하기 前에 不得已召集하게 되엿슴으로 政府는 其對策을 苦慮하고 特히 政友會를 脫出하야 入閣한 床次, 內田, 山崎 三相은 政友會와 現在와 如한 情勢로 대 만으로 攻

一時塗糊策排擊

野黨의 本領發揮

在滿國策의 重要性高調

國民同盟

【東京電話聯合】 國民同盟은 臨時議會召集에 對하야 일즉 農村對策 臨時議會召集을 要求 하고잇는 關係上 贊成하는 態度를 取하게되리라 고 觀測되는바 在滿機構의 軍事的 一元化의 必然的 不可避한 所以를 力說하고 自由主義的 主張에서 旣成政黨의 無力을 訴하야 對滿國策의 重要性을 識揚하고 自由에 하야 國民에게 呼訴하게 되여 잇하면 形式的인 臨時議會에 一種의 活氣를 與하야 巧妙한 戰法으로 舊政治勢力의 矛盾을 暴露하고 自己의 地盤을 開拓하는 戰術下에 議會에 臨할 模樣이다

同하고 對議會策의 攻防作戰에 着手하엿는데 政府에서 意圖하는 風水冷旱害對策은 모도 國民의 要求에 依하야 不得已召集한 臨時議會인만큼 새로운 應急對策이 잇슬 理도 업고 또 現內閣의 性質上 果敢한 救濟對策을 提示하기는 緣木求魚와 가틈으로 從來의 臨時議會와 가티 今回에도 一時를 糊塗하야 大衆의 壓力을 巧妙히 避하려는 方途에 不外하는 것이라하야 政府의 對策에 對하야 期待를 갓고잇지 안흐나 在野二大政黨이 無力함으로 積極的 態度로써 堂堂히 所信을 揭하야 邁進할 氣勢를 보이고잇다 旣成政黨에 對하야 同黨으로서는 純然한 眞正한 野黨인 本領을 發揮할것은 오직 國民同盟뿐이라는 氣分을 갓고 堂堂히 政府의 微溫的 對策에 肉迫하야 旣成政黨의 無氣力을 擊破할 法을 取할터이다

臨時議會는 單純한 應急對策議會에 끈치지 안코 陸軍에서 主張하는바와 가티 在滿機構改組問題가 提案될 것은 必至의 情勢라 하야 專然主力을 此에 集注하야 政友民政兩黨이 當初 拓務案과 類似한 私案을 主張하야 陸軍案을 反對하는 態度를 取하여 잇슴에도 不拘하고 閣僚의 入閣석힌 關係上 反對하는 態度가 弛緩되엿슴으로 必然的으로

一, 在滿機構改革이 더 무軍部中心이라는 것
一, 米穀對策을 提案하지 안는 것은 院議를 無視하는 것
이라는 攻擊이 尖銳하게 되고 또 臨時議會에서도 政府對政友會의 對立關係가 如何히 進展될는지 不明함으로 이 點에 對하여도 深甚 考慮를 拂하고잇는데 各派의 對議會策은 別項과 如하다

底

蔣을 밧게될것을 考慮하고 三相間에 對策을 講究하고잇는데 特히 臨時議會에서는
一, 災害復舊復興救濟策의 不徹

拓務省所管

追加豫算案

【電通東京電話】 拓務省所管의 臨時議會에 提出할 追加豫算

臨時議會를 召集

關西風水害의 復舊對策을 爲하야 臨時議會를 부를것이라고 各方面의 要求가 잇슬 뿐이아니라 政府部內에서도 그 召集의 必要論이 大勢를 制하야 二十八日 定例閣議에서 드듸어 그 決定을 보게되얏는데 復舊費의 豫算査定도 時間을 要케되거니와 大藏省과 折衝도 쉽게 進行될것 갓지못하야 일러도 十一月頃이나 그 召集을 보게되리라고한다.

列國期待에 背離

蘇國際勞働加入을 躊躇

【東京電話聯合】 國際聯盟加入後蘇聯邦의 動向에 對하여는 極端으로 相反되는 兩者의 精神에 鑑하야 全世界로부터 多大한 關心이 集注되여잇는데 二十九日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이미 蘇聯邦의 國策은 聯盟의 平和機構와의 間에 重大한 間隔을 惹起케하야 其妥協解決點의 發見은 加入뒤에 重大問題로되여잇다 即聯盟加入後蘇聯邦은 當然國際勞働機關에 加入할것이라고 豫想하고잇든바 蘇聯邦은 早急 勞働機關의 加入을 吟味하지안코리트비노프 外務人民委員長은 莫斯科歸國後蘇聯政府의 最高會議로써 加入의 諾否를 決定하겟다는 態度를 表明하게되여 列國을 놀나게 하엿다

共産軍의 挾擊으로

四川省城危機切迫

政府軍潰滅狀態陷入

【東京電話聯合】 新疆과의 聯絡을 計劃하든 中國共産軍은 드듸여 四川省으로 侵入하야 各方面의 注目을 集中하고잇는데 二十九日 重慶中野總領事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報告에 依하면 四川省政府首席劉湘氏는 二十六日 來慶하고 成都에 赴하야 大討共政策을 急히 하려고하고잇다 四川省은 南北兩方面으로부터 新興으로부터 宜江方面을 迫하고잇는바 共産黨의 蕭克軍은 이미 賀龍軍과 合流하야 河東, 南河, 共産黨軍의 侵入을 蒙하야 第三路總司令李相氏, 第四路總司令楊森氏는 各各家族을 引率하고 城外로 亡命하엿고 政府軍은 거이 潰滅狀態에 陷入되여 省城成都의 運命이 憂慮되여잇다

農林省米穀對策

米穀對策調査會는 지난二十五日로써 初日總會를 열고 岡田首相의 人事를 비롯하야 審議에 들어갓는데 農林省으로부터 提出한 參考案이란 結局內地米에 亘한 自治的統制라는 美名으로 暗暗裏朝鮮米에 對한 管理를 꾀하야 朝鮮米의 移入防止를 노모하려는대 不外한다.

關東廳職員硬化

菱刈長官은 大場警務局長을 招致하고 極力全職員의 慰撫를 부탁하얏스나 全職員들은 더 一層硬化하야 그들의 無効도를 아가는데 그들이 때것 臨時議會의 召集을 待望하고잇든터로 議會의 召集을 압두고 猛烈한 活動을하고잇서 좀처럼 緩和의 氣運을 보이지 안는다.

北鐵交涉遂成立

四千萬圓의 價格上差違로 드디어 決裂을 招致케되얏든 北鐵讓渡交涉은 다시 廣田外相의 斡旋으로 蘇方에서다 각각 二千萬圓의 讓渡交涉을 行하야 最近一億七千萬圓의 讓渡交涉이 成立되는 同時 危機를 傳하든 日滿蘇三國間의 關係는 比較的 好轉의 氣運을 보이는것이 事實이다.

非武裝地帶設置

廣田外相은 北鐵交涉이 完了된뒤 다시 第二次平和工作으로 日滿蘇三國國境에 非武裝地帶設置를 提議코자하야 이미 蘇聯側의 內意까지 探知해 보얏더니 蘇聯側에서도 原則的으로 何等의 異議를 가지지안하얏슴이 判明되야 日蘇關係의 平和的 解決이 뒤一層 有望하다고한다.

駐中伊使館昇格

二十七日 國民政府로부터 中國과 伊太利國의 兩政府에서는 五相相對國에 駐箚하고잇는 公使館을 大使館으로 昇格시키기로 決定하야 이미 거긔 對한 準備를 進行中이라고 發表하얏다. 이以後 日本을 爲始하야 여러나라에서도 伊國의 뒤를 이어 駐中公使館의 昇格을 行하리라고한다

共軍四川省挾擊

朱德軍은 四川省 川東南川의 邊境을 肉迫하고 賀龍軍은 江西省으로부터 湖南省을 지나 貴州로 들어가서 長江沿岸에 出沒하매 四川省은 左右挾擊을 當하고잇는 形便이다. 四川省의 外軍討伐의 困難을 意味하는 同時에 中央軍은 勢力의 南下와 中央軍에 베트化는 同時에 四川省의 外當히 注目을 이끌고잇다.

墺獨立保障宣言

墺太利獨立保障을 爲하야 伊太利側에서는 强制的規定을 設定코자하야 英佛에 交涉하얏스나 英佛이 거긔 同意치안코 그저 微溫的 共同宣言을 主張하매 처음伊太利에서는 적지안한不滿까지가지게되얏스나 究竟그 微溫的 宣言도 업는이보다 낫다고생각하야 二十七日드듸어 英佛伊三國의 墺獨立保障確認共同宣言 發表를보게되얏다.

米織物罷業終了

全米의 織維工業으로하야금 麻痺狀態에 빠지게한 米國織物工의 罷業團盟罷業은 二十二日罷業委員長고만氏의 罷業中止宣言이 대大罷團을 告하고 二十四日 아침부터 一齊히 就業을 開始하얏스나 今番罷業參加工場五百二十六個所 도 參加人員四十二萬人中 百八十二個所 六萬八千五百人은 아즉도 就業을 不肯하야 罷業의 殘壘를 직히고잇다.

匡救對策樹立

農林省에서準備

【電通東京電話】 農林省에서는 臨時議會에 提案할 匡救對策을 樹立을 急히 하기爲하야 二十九日風水害地方의 各府縣에 必要한 調査事項에 關한 報告를 要求하는 同時에 各部各局으로부터 事務官技師 技手等四十餘名을 各各該當府縣에 派遣하야 調査를 急히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大體十日까지 지에 이 報告

를 蒐集하야 此에 基하야 匡救對策을 決定할터이다

國策審議會는

必要하다

◇床次遞相談

【東京電話聯合】 內田鐵相과 會見한後 床次遞相은 左와 如히 말하엿다

國策審議會는 업는것보다 잇는便이 나으리라고 信하나 此에 對하여는 여러가지 意見이 잇는 模樣이다 그러나 自己도 생각하고 잇슴으로 政府에 提案할 것은 아니다 世間에서는 政友會가 委員을 내이지 안을 것으로 될수업스리라고 말하는 者도 잇스나 政友會에서 반듯이 贊成하여야될것은 아니라는 것은 不當하다 自己는 잇슬수잇스면 臨時議會前에 國策審議會를 設하야 國策을 研究實行하여가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臨時議會以前에

專任拓相設置?

首相負擔輕減上有力視

【東京電話聯合】 專任拓相을 두게 되리라는데 關하야 岡田首相은 過般 其側近者에 對하야 通常議會前에는 어떠케 考慮하여야 되겟다고 漏洩하엿다 이것은 臨時議會召集을 決定하기 前의 날임으로 아마 岡田首相은 臨時議會召集前에 專任拓相을 둘것으로 생각하고잇는것이라고 觀測되는 바 閣내 在滿機構改革에도 臨時議會에 以上首相의 負擔案을 提出하는 以上 首相의 負擔을 輕減식히기 爲하야 臨時議會召集前에 專任拓相을 두자고 主張하는 者도 잇는바 適任者를 어드면 臨時議會召集前에 專任拓相을 두게되리라고 觀測되고잇서 有力하다

大藏關係의

災害復舊策準備

【電通東京電話】 大藏省關係의 關西大風水害에 依한 被害는
一, 稅務署와 稅關廳舍의 破損
一, 烟草小賣所의 被害
一, 鹽田의 破壞
等인데 此에 對한 對策은 目下矢吹政務次官이 實地視察中인데 그의 歸東을 기다려 政府도 서 施設할것은 各各豫算에 要求할 터이다 그리고 災害地에 對한 租稅의 減免에 對하여도 現行法으로서 不充分한 境遇에는 特別法을 制定하야 議會에 提出할 模樣이다

國策審議會

設置問題再燃

【電通東京電話】 政府는 臨時議會召集을 압두고 國策審議會를 設置할 必要를 認識하고 此를 實現케할 意向이 濃厚하게되엿다 即 擬著國策審議會의 成立이 閣內에 提唱되엿슬時 其構成의 組織에 關하야 閣內에 意見相違를 生하야 一方政府는 在滿行政機構改革問題等이 惹起되여 一時留保되여잇든바 最近災害對策으로 臨時議會를 召集하기로 決定한것을 契機로 國策審議會 設置問題가 再燃되엿다 더욱 次遞相은 訪問하게 되엿슴으로 其組織, 委員은 可及的各方面의 權威者를 拔擢登用할 方針으로 政界財界學界의 一流人物을 網羅하야 産業財政農業等其他各般에 亘하야 根本的國策樹立을 圖하려는데잇다 이때 政府는 政民兩黨에 訴하야 一石二鳥로 政府의 効果를 擧하기 爲하야 臨時議會까지 樹立케할 方針이다

休日氣配

◇株式=爲安과 貿易出超에 買氣刺戟되여 氣配堅旋
大新 八九、五〇
新東 一四〇、八〇
日産 一二三、――
鐘新 一三七、五〇

◇期米=拂下後想의 數字如何에 不拘 依然高値合으로 押目買氣旺盛 氣配手硬(絲綿不變)

◇別報=日本內地米 九月二〇日現在의 收穫豫想은 十四府縣分은 一四〇〇萬五、七七〇石으로 前年實收에 比較하야 四五三萬八、九三五石의 激減이다 此狀態로가면 總計五、五〇〇萬石以下는 確實케되고 다시 颱風害를 加算하면 未曾有의 凶作이다

後方陣地構築

鐵壁線의 完成과

白耳義對獨防備

【電通巴里二十九日發】 聞知한바에 依하면 白義耳政府는 東方의 獨逸國境에 所謂鐵壁을 完成을 急하는 同時에 北海에 近한 西北白義耳의 二大都市 안젤스及간을 中心으로 後方陣地構築을 進行하고잇다한다 그리고 右後方陣地는 英佛軍의 來援을 前提로 其通路를 確保하려하는바 白義耳의 對獨戰略强化의 意味로 解釋할수밧게업는 方針과 姿勢를 如實히 말하고잇는것이다

强制補助軍務令

波大統領發令

【電通華沙廿九日發】 歐洲國際關係가 險惡한 情勢에 鑑하야 波蘭大統領은 二十九日十七才乃至六十才의 男子 十九才乃至四十五才의 女子에 對하야 强制補助的軍務에 服케하는 大統領令을 發表하야 擧國一致로 危機에 當하게되엿다

人事·集會

▲立利允氏(中央高普校長)二十九日午後五時平北定州郡南面南陽洞鄕第에서 遭內艱

八面鋒

京阪神地方의 罹災兄弟 第一問題가 住宅問題라고, 復興事業이 잇스니까 일꺼리는 잇겟스니 그럴듯도할뿐이나 그야말로 雨露를 避할 安住는 잇서야지。

◇

順化院서 警察證明이 업고 티프스患者를 不收容。이것이 官廳式 煩雜。 쫏겨난傳染病者가 菌을 發散하고 다닌은 어찌하려나?

◇

中國서는 未成年者에게 喫煙을 禁止。 이런것은 朝鮮에도 必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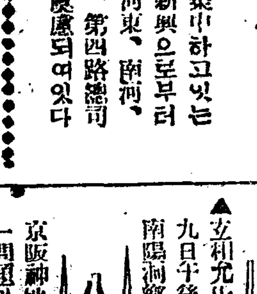
◇

國際勞働會議는 부르조아機關이라고 蘇聯이 參加치안 엇다고。國際聯盟은 社會主義機關?

◇

臨時議會 압두고 政黨의 活動 漸次活潑。고기는 물이政黨은 議會가 노리터

今日本紙四面



조선농업과 공업에 잇서 제일 긴요하고 중요한 것은 농구(農具)와 공구(工具)개량이외다 …

(型錄進呈) 電話一〇九番 振替京城一〇六番
朝鮮黃海道載寧驛前 利善式綿打機製作所

最新改良利善式手足動稻扱機

主任 曹秉學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檢眼無料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 光化門二二八二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幸允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 前(電光二二三一)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至午後八時

恩給
立替 恩給證書 擔保融通 京城府 …
鄭商會

書籍 古本
新本古書特賣目錄郵券三錢 昭和九年度書分類目錄四六判二八二頁郵券十錢
京城府明治町 古本高價買入 御報次第參上
電本三三七番 金剛堂書店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十壹番地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通、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利川、海州、春川、全州、群山、釜山、元山、淸津、咸興、晋州、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平壤、南大門、大田、端川、成興、永興、麗水
出張所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

淸貝
極上等絹紬製各種
京城明治町一丁目 秋岡商會

藥 御問屋
株式會社 新井藥房
京城南大門通二丁目 營業案內申越進呈
電話 四〇九一・一〇六八 四〇九四・三四〇八 振替京城一六番

두통과치통에
노-신

咸北鑛區로千餘名 營口地方에五百戶

各道의戶別配定을決定하야 三南災民을移住키로

치위를압두고 그들은어데로

삼남수해의 리재민 구제에대하야는 총독부사회과에서 서조선과 북조선지방의 광산로동자로 이주식히고저 조사립안을 하고 죽내(竹內)촉탁은함북지방에 진목(眞木)촉탁은서조선에출장중이든바 먼저도라온 죽내촉탁은 함북지방의 이주자알선에 대하야 다음과가치 말할것을말하엿다 즉 단신로동자 팔백칠십명과 가족잇는 로동자이백명 합일천칠십명을함북영안(永安)아오지(阿吾地)유선(遊仙)게림(鷄林)각탄광으로 보낼터인데『한바』(飯場)와 숙사등의 설비도상당하고 임금은 항외가 칠팔십전가량 이고 항내의 로동은 일원이상으로 평균일원이십전은 되리라하며 이주자의 모집은치위가 오기전에 곳착수하여 사회과에서 이주를알선하여 주게되엇다 한다

그리고 서조선지방은 평남의 강서(江西)강동(江東) 룡담(龍潭)대문산(大文山) 대성(大成)동광산에 약천명을 이주식힐수잇다하야 방금 조사와교섭을하고잇는중이라한다

이와동시총독부에서는남조선수해 리재농민 칠천여호를에도동을왓든터인데 오는십월십일까지에 총계오백호의농민을세번에논하서영구(營口)안전농촌으로 이민식히기로하고 매호에려비기타를 합하야 오십원의보조를하리라는바 각도별이민호수는다음과갓다

慶南	二〇〇戶
慶北	一六〇戶
全南	八〇戶
全北	三〇戶
忠北	一〇戶
忠南	二〇戶
合計	五〇〇戶

製針工場職工 三十餘圓醵出

대판시동성구중본정(大阪市東成區中本町五二六) 오백이십륙번지에잇는 천구제침공장(川口製針工場)에서는 동공장주인 현(玄不顯)씨의 호의로 동공장내 공장주급 직공전부가 의연금을 거출한 금삼십원구십전을 가지고 동공장직공 김복조 김창식 김교수(金敎洙 金昌植 金福祚)삼씨가본사대판지국을내방하고 이재지로 적은돈이나마 보내달라면서 봉사지국을 차저 왓다

崔元澤氏完快 自宅서靜養中

간도공산당사건으로 팔년동안 철창생활을하고 며칠전에 출옥한 대구(大邱)출생최원택(崔元澤)씨는오래동안감옥생활에극도로 신경이쇠약하야 한때는발작적으로 심진까지 하엿다고전

姑婦싸우고서 媤母投井自殺

【安東】 안동군??면??리(??里)칠십이번지에사는 김영로(金永老)(六二)(假名)의처 박씨(朴氏)(五二)(假名)는 그의며누리 리씨(李氏)(假名)와 이십칠일밤새도록 언쟁을하다가 아모말업시 집을 나간후 소식이 업드니 이십팔일 새벽여섯시경에 이웃부녀들이 물길너갓다가 우물에서 시체를 발견하엿다는데 원인은 머지안코목숨을 이가티 작혹하게 끈어버린원인을알거대 전긔박씨는 지금으로부터 이십여년전에 김영로의후취로드러가 전실몸에서나흔 김범용(金凡容)(假名)을 친아들가티 사랑하여 오다가몃해전에 며누리로 전긔리씨를 마저드린후부터는 가정이 불화하든남어지에 그와가티 죽은것이라한다

玄濟明獨唱會

時日 十月五日下午八時 場所 公會堂

入場料 白券 一圓 靑券 五十錢 學生券 三十錢

主催 延禧專門校 後援 朝鮮日報社

四百朝鮮人救護

兵庫縣下의邊僻村落을訪問코

我社神戶救護班消息

【本社特派員神戶電話】 대판지국 신호(神戶) 리재동포구호반은 이십사,이십오의이틀동안 신호지국장 설동찬(薛東瓚)씨와 안재환(安在桓)전해경(田海耕)씨등이 세대로 난위어 재해가 가장심하엿든 병고현무고군본장촌청목(兵庫縣武庫郡本庄村靑木)에서 십삼호칠십명동포에게또서궁시(西宮市)에서사십오호이백칠명에무고군명미촌(武庫郡鳴尾村)에서이십팔호 일백사십구인 도합팔십륙호사백이십륙인에게 쌀과 된장을나누어주엇다 이상의 리재민은전연가옥을 일헛거나 파괴되어잇슬곳이업는 비참한 이들로나제는 그중일부가 서궁공회당과사원에서 밤만자고 다수는천막에나 로천생활을 하는터로서 동시 이재민은 감격에넘치어눈물을흘리며 전송하엿다

强盜未遂한 犯人을嚴探中

【始興】 시흥군동면봉천리(始興東面奉天里)(五二)김상순(金相順)은 가축시장에서 소판돈백원을 가지고 돌아오다가도중에서 새우고 이튼날 오전여덟시경에 시흥군동면상도리(始興郡東面上道里)사람의동행이든는 고개를지날지음에 엇던자가 주머니칼을 번쩍거리면서 달녀들어돈을내라고 협박함으로 동행중의 김복남(金福男)(三二)이란자가도적이야 소리를지르며 부근동리를소란케함으로 목적을 달치못하고 몸을감추어버렷다는데 급보를접한영등포서(永登浦署)에서는 즉시부근각경찰서로 수배하는동시 범인체포에 맹활동을하는중이라고한다

自働車에少女重傷

삼십일 오전열한시 오십분쯤에 시내 권농동(勸農洞)삼십오번지 류달형(柳達亨)의둘재딸 정희(貞姬)(九)는 창덕궁아플자내가다가 그때마츰 종로삼정목 경화자동차부(京華自働車部)운전수 김현룡(金顯龍)이가 운전해가든 자동차에게바치어 귀와 다리에 이주일동안치료할 중상을입엇다 자동차는 원남동(苑南洞) 방면에서 종로삼정목쪽으로 질주하든중 전기장소에서 『커브』를 돌아가다가 그리되엇다 이라한다

直接運動派三百頭 奉天領警에被逮

取調에따라○○運動全貌露出豫想

直接行動派에大動搖

【奉天】 봉천령사관 경찰서(奉天領事館警察署)고등계에서는 이삼일전부터 조선인세명을인치하고 극비밀리에 취조를개시하엿다는바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듯는바에의하면 그는 조선××당중앙집행위원회(朝鮮××黨中央執行委員會) 재정부장(財政部長)황모(黃某)와 조선××군(朝鮮××軍) 군수부장(軍需部長) 박모(朴某) 동××군 총사령(總司令)량서봉(梁瑞鳳)의 부관(副官) 김모(金某)등으로 그들은 만주에잇서 조선○○운동에 가장오랜 력사를가진 유력분자들로 근이십년간 첨예한활동을 계속하면서 교묘히 관헌의눈을 피하야 지금까지내려오든중에 이번에 령사관경찰관의 손에붓들니게된 것이라고한다 령사관 경찰서에서 그들을 잡기까지에는 상당한 고심을 다하엿다는데 그들의 취조에 딸아서는 만주에잇서서 조선××의 직접운동의 전면모가 나타날것으로 조선××군의 금후운동에 적지안흔 동요가 잇스리라고한다

三南水害復舊費 三百五十萬圓要求

臨時議會에上程豫定

【東京電話】 척무성(拓務省)에서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제출되여 잇든 삼남지방수해복구 예산에대하야 목하사정을하는중인데 복구요구 예산액은오백팔십일만구천원 이요 그가운데 일백삼십일만사천원은 소화십년도분으로 계상하고 남어지 사백오십만오천원은 금년도분 예정으로서 총독부로서는 그중오십만오천원을 제이예비금에서 삼백만원을 책임지출 할예정이엇섯는데 임시 의회소집이 결정되엇슴으로 그삼백오십만원은 본년도 추가예산으로 임시 의회에 제출하야 협찬을엇기로 결정하엿다 그리고대부분은 토목공사비요 리재민가운데특히 곤난한 팔백호와북조선지방의 오백호를 만주에이주식힐예산이 포함되엇다

金鐵柱等覆審 來九日에開廷

【全州】 조선공산당전북재건운동(全北再建運動)피고김철주(金鐵柱)김문옥(金文玉)등은저간 전주지방법원에서 심리중금년삼월경에 각각삼년,일년반의 처형을밧은후 즉시 피고등이대구 지방법원으로 공소하얏든바 제일회 공소공판이 오는십월구일이라고한다

天氣豫報

曇 少雨

朝鮮及日本의 氣壓의配置는 甚히混亂하야 弱한低氣壓이 靑島地方과 黃海及日本海南方에잇서서 徐徐히東行하고잇다 高氣壓은 北滿에떠저잇다 北朝鮮은흐리고 그밧게는비가오고잇다 明日도日氣는낫부다

昨日最高	二一、四
同 最低	一五、八
今朝最低	一六、七
今日正午	一七、三

吾鼻三尺도不拘 三南災地로送金

一百四十餘圓을本社로寄托

大阪在留兄弟精誠

【神戶】 병고현니기시축지본정사정목(兵庫縣尼崎市築地本町)에잇는일소련관신소비조합(阪神消費組合)에서는동조합구제반원이 총동원하야 이래각지역에서 남조선수재 구제금을극력모집하야 동조합상무리사김경중씨(金敬中)씨가모집한 금일백사십륙원오십오전중 교통비로 삼원오십전을 제한금일백사십삼원을 가지고본사대판지국을내방하고송금을의뢰하다

在留有志婦人 多數金品募集

【大阪】 대판시동정천구장병동통(東淀川區長柄東通)에잇는조선부인유지들은남조선의대수해로헐버슨 동포들을위하야 다소라도성의를 표하겟다는 뜻으로 이곳동포들에게 옷이백십륙점과 현금구원륙십전을 거두어재지에보내달라고 본보지국에 가저왓다 특히 김선희(金善姬) 리심덕(李心德)리천분(李鍊粉)제씨가열심히 활동하야 그만큼 조흔성적을어덧다고한다

秋雨霏霏 (오늘종로에서)

國民府武裝隊가 集團部落을妨害

秋季義務金을强制로徵收

桓仁縣地方第六區서

【奉天】 모처착전에의하면환인현제륙구(桓仁縣第六區)에근거를두고잇는국민부(國民府)조선○○군에서는제륙중대장장명도(張明道)와 제칠대장 최윤구(崔允九)이하무장군이십여명을각지에 파견하야 추괴의무금을강제징수하며 더욱히 집단부락편성에대하야 여러가지로 방해를하는등 또는민히즉지도를바들때에는 용서업시 엄중한처벌을하겟다고 위협함으로 해지방의농민들은 극히 공포중에지낸다고한다

遺子出奔妻를 亂打하야重態

憤怒와嫉妬를못이겨

젖먹는 어린것까지 버리고도망한불신한 안해를 차저서헤매기를석달만에 겨우맛나서 집으로도라가자고 달랫스나 듯지아니한다고 그만질투와 분노에떨리는주먹이 안해를 따려서기절을시켜일시는 살인사건이 어러낫다고 소동한사건이 이십구일밤여섯시경에시내관철동(貫鐵洞)에잇섯다 본적을 양주군와부면덕산리(楊州郡瓦阜面德山里)에 두고시내관철동이백칠번지에서 해냥사리를하는박삼룡(朴三龍)(三一)은 그안해 정필순(鄭必順)(二九)이가 석달전에 세살먹은어린아기조차 버려두고 도망하자 이래각처로 그안해를 차저댕기다가 이십구일석양에 우연히그안해가 가튼관철동 일백사십팔번지 김소희(金素姬)의 집에서 고녀노릇을 하고잇는것을 발견하고 간곡한말로더욱히 가엽슨 어린것의 신상을보아서라도 다시집으로 도라가달라고 달랫다 그러나 안해는완강히 거절함으로극도로 흥분된남편은 그만즉석에서 안해를란타하야 기절을 시켯다 그는필경 소관종로서에 인치되고 그안해는 부근의사를 불러서 응급치료를 가하얏과다 행히소생햇스나 생명은 여전 위독하다고한다

雇傭이竊盜

시내 종로○서목이백십번지박옥희(朴玉姬)음식점에서는 일주일전에 성명몰으는 스물두살가량된 남자한명을 고용으로드려 일을시켜왓는데 삼십일오전한시에 주인의의복두서너벌과돈십오원을훔쳐가지고어데로인지 도주해버렷다

秋夕노리로脚戲

【丹城】 추석가절의명물인단성씨름대회는 당지유지주최 본보단성지국후원으로 지난 이십사,오량일에 당지시장에서 개최되여 대성황리에 맛치게되바 일등상은 신등면단계리(新等面丹溪里) 양금석(梁今石)이등상은단성사방가독(砂防)황숙중(黃叔仲)이엿다한다

運動競技

올림픽派遣=氷上選手 朝鮮選手有望

全部四名派遣

日本氷上競技聯盟에서는一九三六年二月에獨逸『갈밋슈·바—텐김헨』에서열리는 第四回世界冬季올림픽競技大會選手派遣에對하야討議한結果 氷上競技(스피—드·스케—팅)選手는四名을派遣하기로決定되엿다는데 候補者로는 今年度氷上選手權保持者 金正淵君을비롯하야李聖德 崔龍振君等이 有望視되는바明春一月下旬 日光서열리는世界冬季올림픽氷上選拔競技를보아最後決定을지울터이라한다

城大豫科主催 中等蹴球

盛況裡開幕

京城帝大豫科主催의 第六回全朝鮮中等蹴球大會는 豫定과가티 昨二十九日午後二時부터淸凉里大豫科球場에서開幕하야 今三十日에도 雨中에繼續擧行되는바 三十日正午까지의戰績은다음과가트며 이번大會에는全朝鮮各地의強豪十一校가 參加하야 例年以上의盛況을이루고잇다 第一日에 中東을이기고第二回戰에드러간 關西와培材의二校는 前日의激戰으로因하야負傷者가만허 不得已棄權을하엿다고한다

◇第一回戰

培材2—1徽新

光成2—1中東

◇第二回戰

培材4—0二高

海州3—0仁商

鐵高 棄權 光成

平壤에蹴球 審判會組織

【平壤】 蹴球都城平壤에잇서 아즉까지 蹴球審判에對하여統一된團體가업서 蹴球大會時마다 不平을 千萬遺憾으로생각든바 지난八月二十二日에 斯界의權威者들을 網羅하여가지고 關西蹴球審判協會를 組織하엿는데 압흐로 各大會에 活躍케될것으로 만흔期待를갓고잇는바同協會의 初代任員은다음과갓다

▲幹事長 楊秉祉 ▲常務幹事 車在鎰 同 金光信 ▲會員 李錫贊 姜璟求 趙鼎增 金基淵 朴永哲 邊在頊 李貞植 金命淵 ▲贊助員 金炳淵 金性樂 宋錫謙 金恒福 金得洙 尹山溫

藥專主催 中等庭球

明日龍山코—트

藥專主催 第四回全朝鮮中等學校選手權大會는二十九日、卅日 兩日間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豫定이든바 雨天으로因하야明日(十月一日)午前九時부터 龍山鐵道庭球코—트에서 擧行키로되엿는데 萬一明日도降雨가잇게되는 때에는 日字를變更한後 各校로通知할터이라한다

第六回全朝鮮團體柔道大會

◇日時 十月十三日午後二時

◇場所 鍾路 靑年會 體育館

◇申請 十月十二日까지中央基靑으로

主催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中國語法의精華이模範的總攬을! 中國語發音自通의曙光인新記錄을!

自習完璧 支那語集成

菊版半洋裝一冊、堂堂四百頁、定價一圓六十錢、書留送料十八錢(要先金)

◎十萬部大突破로忽焉七版出來!

△本書는二十年間中國語研究에專力하야 斯界貢獻이不尠한 宋憲奭先生이多年實地教授의經驗으로더옥增補訂正하야 力作한大印刷物이다 數十萬의中國語學徒는 中國人과音語通情이容易합니다 讀者諸氏는一覽하면月謝金도不費하고教師도不聘하되數月之內에 介하오니 閑暇지마시고곳 準備하시오 飛風迅雷的으로注文이殺到 右外에數萬種新舊書籍을特別大割引部發賣

發賣所 京城府鍾路二丁目八十四番地 振替口座京城八九〇〇番 德興書林

自轉車의陳列販賣店出現

現金正札附廉賣主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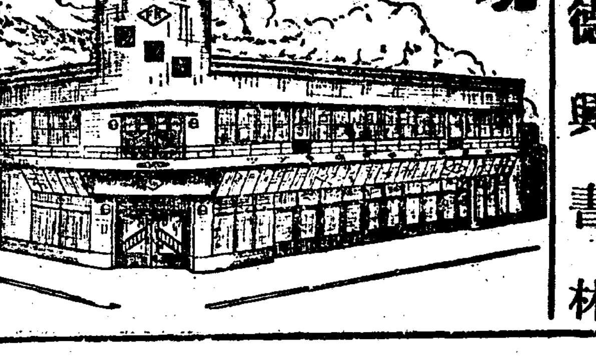
九月의奉仕車

エースリー號自轉車(二百臺限) 金卄四圓八十五錢

ピーエル號自轉車(百臺限) 金三十五圓十五錢

其他自轉車及部分品에이르기까지 階上階下陳列豐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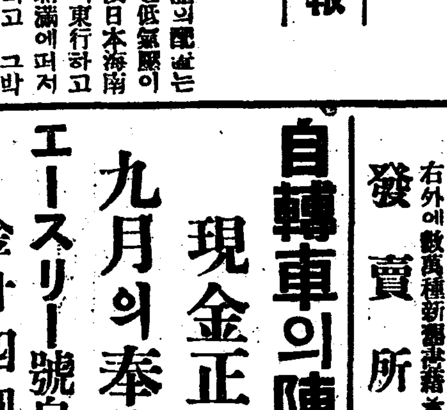
中古自轉車一臺八圓부터二十圓까지在庫豊富



自轉車商 FK ツヅキ商會陳列販賣所 京城南大門前角 電話本局(2)二三一〇番 振替京城五一五二番

新製品萬人向特選十八金代用金側時計大賣出

●時計를買入하려는분은必히本洋行時計部로一次問議後로決定하시옵소서 今般斯界에大發明인合理的實用品으로十八金同様不變色代用金側時計를發賣以來全國各地에서破天荒이注文과絶對好評이感謝狀이나날이들어갑니다아울러도歐米洋行의奉仕的事業을모르시난분에게左記兩品을紹介하오니一次注文하시와널니宣傳을願합니다



十八金代用金側大形十五石入市價廿圓以上品 特價金六圓七拾錢 クサリメタル付

クローム側十六形十五石入市價十八圓以上品 特價金五圓 クサリメタル付

十八金代用金側九形十五石入市價二十圓以上品 特價金七圓也 腕皮付

純クローム側九形十石入 特價金六圓也 腕皮付

十個年保證品、先金注文送料負擔、新義州府雲井町九 郵便局私書函四十二號 歐米洋行時計部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登錄商標 선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九二一五九

大阪株式會社柴田商店滿鮮總代理店

原料産地直輸入

원료물감

原料卸商 德世洋行 京城府鍾路三丁目 電話光二八番、振替京城八〇四番

治麻球

男女淋疾의靈藥

定價 五十個入 一圓 百個入 一圓八十錢 百八十個入 三圓

患者諸氏여言論보다效果에事實이證明力의有無를試用하면可知할것이오니 用法禁忌注意說明書에詳記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發賣元 救世藥館 振替京城一二九六九 電話本局二六九九

二十七日より堂堂大公開絶對日延無し

十年に一度心の扉を叩くフランス名畫!!

(普通日)晝部十二時四十分より 夜部六時五十分より

日曜日祭日、第一回十二時第二回三時二十分第三回六時五十分

1短篇ニウース

2獨逸トビス特作 監督リヒアルド・オスワルド 主演ドロテア・ウイーク

▲伯爵令孃 九卷

林檎の花匂ふハンガリアの莊園で我等がウイークのラブローマンス!

3佛ヴアンダルデウラック超特作日本版 監督ジュリアン・デュヴイヴイエ 主演ロベール・リナン少年

▲にんじん 九卷

之は世界に名高きの名オペレッタの映畫化 野の若草が生萌えて緑が美しく白壁に照り映える南フランスの平和な村! 時に充たされた田園に生れ乍ら憐れにも心いぢけた不幸の少年――にんじん! 嘗つて少年であり少女であった人へよ子を持つ父であり、母である人へよ!一九三四年度最高の名畫『にんじん』の上映を一度は必ず!

明治町一 電本二一六五 浪花館

九月二十九日밤부터特別大公開 九月卅日十月一日은晝夜二回公開 夜‖八時晝一時始映‖ 十月一日밤부터七時四十五分始映 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均一

◇유니버살社超特作映畫 純情悲劇 애사의과눈물 五卷 監督—정크라—秀判氏 主演—호로레스

◇米國컬로—산社超特作映畫 冒險活劇 猛優달맛치 全七卷 監督—헨리레야만氏 主演—리챠드달맛치氏

◇映音全發聲社全發聲日本語版 爆笑喜劇 낫잠잣수업서 全九卷 監督—小澤得二氏 主演—柳永二郎氏

廣浦桃花洞 電龍三二二 桃花劇場

水災에우는同胞에 輻湊하는同情의淚

數月두고分錢모아 七十里를걸어寄托 山村家庭에여맨女性이

【安邊】 남선수재동정에대한 미화(美話)두가지＝함남안변군 신모면천내리(新慕面泉內里)라는산골에사는김정숙(金貞淑)녀사는가난한가정에여매인부자유한몸으로서본보를통하야삼남리재동포들의 참상을듯고 그들을 위하야 조고마한힘이라도 보태야하겟다는 구든마음으로 수월동안을두고 틈틈히 큰근조막을 순회하면서 푼푼전전이 거두운 것이현금 사원륙십전이 엿섯는데김정숙녀사는 이가을철에 농촌의밧븜도 불구하고 친히그돈을가지고 칠십리나 되는먼길을 거러서 지난이십일일에 본보안변지국을 차저와서 적으나마 치위에 떨고잇는 수재지동포에게전달해 줄것을 의뢰하고도라갓스며

◇안변배화공립보통학교(安邊培花公普校) 학생일동은 당임선생들에게서 각기수재동포들의비참한이약이를듯고나서동정심에서 울어난 순정으로한입두입거두어 돈삼원을 맨들어가지고 동교교장백정신임(白井信任)씨에게 조선일보사로 전달하여 달라고 의뢰함으로써 백정씨는 학생들의풍부한 동정심을극구칭송한후 그들의소원대로 지난이십팔일에 그돈삼원을 본보안변지국에 보내여 재지에전달할것을 의뢰하엿다고한다

長淵邑敎會의 水害同情衣服

【長淵】 남조선일대에미증유의대수재로인하야조선민족전체가쓰라린눈물을흘러가며동정을하고잇음은본보를통하여일반이다아는바이어니와 황해도 장연읍교회에서는 삼남수재민의 기아선상에서 아우성치는 동족들에게적으나마 정의라도 표하기위하여연보를 하여가지고 현금은 송화구제부로 주송하고 부인들머니들의 드거운정에서나온 의복신구점은 본사 장연지국에의뢰하여 본사를통해 재지로보내주기를청하여발송하엿다

東明學院生들 赤誠의同情金

【永興】 영흥군고녕면동명학원(古寧面東明學院)아동일동은 모다무산 아동들로 푼푼이모은 돈을재지 동포들에게 보내여달라고일금 일원오십오전을 본보 영흥지국에 기탁하엿다

學用品을節約 災民同情의熱誠 楊口公立普校生徒의寄托

【楊口】 연일학자두가자유를 지못한 처지에잇슴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양구읍 양구공립보통학교생도들은 자발적으로 삼남수해에 참상을당하고 지금까지 풍찬로숙의 생활을 계속하는리재민을 구제하겟다는 동족애에넘치는 아름다운생각으로 하얏용돈을 절약하야 푼푼이모은 연금 삼원일원육십오전을 지난이십팔일에 본사양구지국에 가지고와서 얼마아니되는 금액이어서 붓그러우나 하로밧비 재지동포에게 전달하여달라고 긔탁하엿다

運轉手會主催 救濟素劇盛況 本社支局後援

【義州】 긔보＝지난이십오、륙량일간 의주운전수 친목회주최와 국경영화사(國境映畵社)의주예기권번 본사의주지국 후원아래에 당지공회당에서 남조선수해 구제소인극을 개최하야성황으로 마치엿는바 일반의 동정은 각방면으로폭주하야 의주읍에서는장소 전긔회사에서는전긔 삼성인쇄사(三省印刷社)에서는 선전비라등 인쇄물을무료로제공하엿스며 당석에서 의연한분의금액과씨명은다음과갓다

▲金五圓運轉手親睦會 ▲金二圓式林昌鉉 李寶榮 金宅善 志田信男 金暎山紅 ▲金一圓五十錢式崔光洙 崔在福 平野誠 ▲金一圓式孫陽淑 加藤集 張鉉花 李順守 [illegible] 尹錫寶 中野榮吉 野本捺作 李昌郁 金炳瑞 金元煜 李範淳 金永祚 鴨江酒造社 許夢拾六圓

◇寫眞：義州水害救濟素人劇宣傳準備의光景

一匙米모아 水害同胞同情 文山靑年會員美擧

【江華】 루보＝강화군하도면 문산리(下道面文山里)문산청년회(文山靑年會)에서는삼남의수재로인하야 옷과밥을일코 처참한상태에 빠진 리재동포들은엄상가상으로 닐괴가차차 치위가오나 생각만해도 몸서리치게 되는반면에 회원일동이 다가튼 마음으로 끼끼마다 백미한수가락식 저축하엿다가 그대금이원칠십전을회장박주경(朴周慶)씨가 지난이십구일 본사강화지국에와서 삼남리재동포에게 보내여달라고긔탁하엿다

三南水害救濟 全江華民發奮

【江華】 루보＝지난여름에삼남지방의 고로지못한 전후! 사정업시 습격하는험악한 탁랑에 집도땅도 다빼앗기고 알몸만으로 사선을버서나서 풍찬로숙하여가며 도로에서 방황하는삼남수해의 사십만리재동포를 만분의일이라도 구제하기위하야 강화군수조중현(江華郡守趙充顯)씨는 열정을기우려각면과 각학교를 통하야 구제의연금품을모집하여 지난이십삼일까지 보낸액은 좌긔와갓다

江華郡內面 六十五圓八十六錢 [illegible]面 六十四圓九十八錢 佛恩面 五十九圓五十六錢 府內面 五十三圓二十六錢 仙源面 二十一圓〇五錢 吉祥面 二十圓九十一錢 松海面 十四圓 江華公普 十二圓三十一錢 兩寺面 六圓四十八錢 吉祥公普校 四圓四十一錢 喬桐公普校 六圓五十錢 三山面 二圓十錢 合計金三百四十一圓二十三錢

三南水害活寫 慶山에서大盛況

【慶山】 본보경북경산지국에서는 남선경제일보 경산지국후원(南鮮經濟日報慶山支局後援)하에 독자급시민위안차 본사촬영인 경남수해영화대회를 본월이십륙일 오후칠시반에 경산청년회관에서 개최하엿든바 다수군중의관람리에 동열시반 무사종료하엿다고한다

大同서도盛況

【大同】 지난구월십이일저녁에 본사대동지국에서 삼남수해사진을 상영하랴고 만반준비가 완비하고 관중은 일천오륙백명이나 쇄도하엿스나 긔계의고장으로 상영하지못하고 섭섭히들려보내고 본사에서는 다시금이십팔일을기하야 상영한바 우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성황을 일우엇다

年內校舍起工 位置는東門外

【安州】 안주고등보통학교긔부성적이 매우량호하므로 금년안으로 교사건축에 착수할모양이라는바 위치는 안주동문밧(安州東門外) 룡연리(龍淵里)가유력하다고한다

松田市民의 關西風災同情 通川支局에寄託

【通川】 지난─ㅣ진비와 바람에 관서지방(關西地方)인 대판(大阪)시가전멸되엿다는 소식을 드른 강원도통천군송전(通川郡松田)시민동촌전(村田)의 일동이 물에빠지고 바람에쓸려 맹동으로 나선사람들에게 방한옷이라도 보태여달나고 인류애(人類愛)로서 지난이십오일 본보통천지국에 의연금을 모아가지고와서 한시밧비 재지(災地)로 보내여 달라고긔탁 하엿다

各里對抗리레─ 本社支局主催

【通川】 본보통천지국에서는 체육을 장려하는의미에서 본군통천공보(通川公普)의운동회를긔회로 통천、주산(珠山)、미산(鑛山)、흡곡(歙谷)의 사면을구역으로한각리대항(各里對抗)리레─를개최하는바 시일과 상품은다음과갓다

一、時日 十月七日(陰八月二十九日)
一、賞品 優勝旗及賞狀

三百八十年前 製造의靑銅大砲 平壤神社工事中發掘

【平壤】 평양신사공사장에서 이십칠일 오후에지콘 공사를하다가 기리이척오촌 넘비직경삼촌오푼 구경(口徑)이촌 삼푼의 청동제 대포를발견하엿는데 그하부에 씨여잇는 글자를보면

嘉靖乙卯
工人
重四十九斤

이라고 씨여잇서서 중국에서제조한것이 분명한것으로 중국년호로보아 서력일천오백 오십오년 지금으로부터 삼백칠십구년전에 제조한것인바 평양박물관에진열하기로 결정되엿다한다

載寧邑朴泰煥翁 五萬圓土地提供

明新學校의基礎確立을爲하야 于先校舍增築計劃

【載寧】 황해도재령읍내에잇는사립명신학교(明新學校)는 도내에잇서 유일한 중등교육긔관으로 사계에공헌이 만흔바학교의재정적 긔초가서지 못하야 엽서는 폐교의비운에 빠진때도 잇든바 금번재령읍내국화리(菊花里)에 거주하는 수십만원재산가박태환(朴泰煥)(六五)씨가종래의모든 사업을 중지하고여생을 육영사업에 진력하기로결심하고 우선벼오백 오십석가량올추수하는토지(시가오만원)를 명신학교에 제공한후 교사의증축과대강당을 신축케할것을 지난이십칠일 동교교장한영진(韓泳鎭)씨에게언명한바이섯다한다그러나 공교는예수교 황해도노회의유력분자로조직된리사회가관리하는터인바 리사회에서 동교관리권에 대하야 여하한처단을 나릴것인지 일반의주목의초점이되어잇다. 박태환씨와한교장은 왕방한긔자에게 다음과가티말하엿다.

朴泰煥氏 談

세상에서는 내가 명신학교에단순히 오만원을 기부하엿다고합니다만은사실은우선오십석추수하는 토지로써현금을 융통하야 학교의시설을 다소간 충분히하고 여러유지와협력하야 훌륭한 중등학교를 만들어볼가 하는것이나의 희망이올시다 여생을천진란만한 어린학생들과가티 보내게된다면 저는 만족하겟습니다 운운。

韓校長 談

이번일을 기초로 삼십만원의재단확립을 위하야 노력하겟습니다 위선남학생교사를 증축하고 대강당과 녀학생교사를 신축하려고합니다 여러분의 만흔동정과후원을 바랍니다 운운。

多年間懸案이든 平壤에放送分局

【平壤】 경성방송국(京城放送局)에서다년간현안중에 잇든 평양방송국 설치문제는 맛츰내 예산약사만원을 던지어명년도에설치하기로결정되엿다한다

牧島福泉寺에 覆面强盜出現 現金强奪逃走

【釜山】 이십구일새벽한시경 부산목도산정에잇는 복천사(福泉寺)에한비를입고 책보로얼골을가린 괴한이침입하야 단도를 겨누워주지윤화상(住持尹和尙)을위협하며 금품을강요 하므로 이에 놀랜주지는 현금십원을내어노앗드니 돈을 바더가지고 어데로인지 도망하여버렷는데 이급보를바든 목도파출소에서는 부산서에보고한바 새벽세시경부터 전서원이출동하야 목도전반에 비상선을펴고 강도범인체포에노력하고잇다한다

朝鮮米差別待遇 絕對反對를絕叫

調査委員會와拓務省에打電 群山朝鮮米擁護會奮起

【群山】 목하동경에서개최중인미곡대책조사회(米穀對策調査會)에제출한 농림성참고안내용은조선미이출을 절대로 관리하라는것이 명백하게 되야조선미는막대한 협위를밧고잇다 조선미의이출관리는 조선경제긔구를 근본으로 파괴하는결과가될것임으로 조선내 각관계단체에서는 조선미차별 대우를절대반대하라는 긔운이 점차농후하야감은이미본지상에보도된바어니와 미곡경제도시인 군산은 실로 사활부침(死活浮沈)에 관한 중대문제이므로 군산에서는 이십칠일오전십일시경부터각관계자들이 부청에 회합하야협의한결과 조선미 옹호군산긔성회의 명의로 조선미차별대우를절대반대한다는 전보를 미곡대책조사위원회 동림시조사위원 함저사신산명에게 타전함과 동시에 척무대신에게도 동양의전보를발하얏다고한다

麗水邑長決定

【麗水】 강구(江口)려수읍장이종고산람벌문제로 인책사직한후 오래동안후임자를 물색중이든바 드듸여원려수경찰서장이든 현재 목포 경찰서장으로잇는 다전의일(多田義一)씨로결정되여물일간 발령될것이며 동시에 취임하리라고한다

콜럼비아歌手出演 音樂舞踊의밤 本社元山支局後援

【元山】 당지 천야악긔점(天野樂器店)주최와 본사원산지국 후원으로 구월삼십일부터 삼일간 원산관내에서 콜럼비아전속 예술가의 총동원으로『음악, 연극, 무용의밤』을 개최키로 하얏다는데 출연가수는 십여명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사계의명성들이라는바 본보애독자에게는 반액권을 진정키로되엿스며 주최자인 천야악긔점에서는 입장자의흥미를 끄을기위하야 경품권추첨이 잇스리라는데 일등에는 축음긔보─타블일대 (시가삼십오원) 이등에 바이올린일개(십오원)등 실등까지 지급하며경품총액은 칠십원이라고한다

時日臨迫한─ 關西體育大會

南에서北에서參加選至 空前의盛況을豫期

【平壤】 관서체육회주최、본사평양지국후원의 제사회 관서체육회 체육대회(第四回關西體育會體育大會)는 시월륙일(토요)오전구시부터 평양부긔림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긔일이 점차박두함을따라 주최측에서는 준비에 분망중인바 이십팔일까지참가인원이 이십여단체에 삼백여선수가 참가하엿는데 남으로경성을 비롯하여 개성、해주、사리원、황주、북으로신의주、의주、선천、강계、정주、안주、진남포등지에서 참가하엿고 뒤니여 참가신청서가 쇄도하고잇서서 공전의 대성황을예긔하고잇는바 거행될동대회의 경기종목은 남녀중등학교와 일반청년부까지의 광범한범위의 우승권을 결할것임으로 그인긔야말로 재언의 필요를 늣기지안는다 동대회의신청 추첨규정급 선정된임원은 다음과갓다고한다

申請及抽籤規定

一、申請期日 十月三日正午까지 要到着
一、申請場所 平壤府巡警里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平壤府南門通 大平運動具店
一、抽籤期日 十月三日午後六時 朝鮮日報社平壤支局에서 本會任員及新聞記者立會下에行함

▲大會任員▼
會長＝曹晩植、副會長＝金炳淵
本部＝金濶炳、宋錫璨、崔應天、金晩炯、金光信
◇陸上競技部
트랙＝崔應天、韓龍浩、朴仁植、朴亨根
필드＝姜瑞璞、楊秉祉、林永哲
監察員＝林允祥、成明淳、金元福
出發信號＝崔應天
計時員＝車在鉉、朴寅燭、金晩炯、
記錄員＝李仁朋、朴根善、楊勳哲
召集員＝金有善
通告員＝張成寬
救護員＝康德熙、吳德七、李尙斌、邊恭燮
◇排球部
鄭在頌、金基瀛、沈奎楨、金正錫
◇籠球部
車在鉉 張淳寬 金元燮 金賢錫
◇庭球部
韓鳳祥 石井達也 竹中韓一 馬庚燮

竊盜常習者 刑務所서縊死

【英陽】 영양군영양면동부동 손원고(孫白元)의아들 손달선(孫達先)(三〇)은 어렷을때부터 손버릇이 조치못하야 그부모가무한히 념려하야오든중 지난칠월에 절도범으로인치되야잇는데 당국의 호의로소유예처분을밧게 도라와 잇든중 또다시구월구일에 영양면서부동김안동의 집에가서 현금십원을 절취한것이판명되여 동십구일에 송국되여이래형무소에 수용중이든바 이십칠일에 목을매여 자살하엿는데 그원인은 세상을 비관하고자살한것이라고한다

卅九年間傭人料 金二百五十圓也

너무나억울한일이라하야 新義州法院에提訴

【新義州】 삼십구년동안고용사리를하고 그보수가 겨우이백오십원이란것은 너무나 억울하다는소송이 지난이십팔일 신의주지방법원에 제출되얏다＝원고 안동현륙도구일조통(安東縣六道溝一條通)리봉익(李鳳翊)은 피고 평북철산군동면서부동(鐵山郡龍面西部洞)리창립(李昌立)에게 고용사리로 드러가 명치이십칠년으로부터 소화구년일월까지 삼십구년동안 금전출납 부동산관리등의 사무를 맛타보앗는데 최초 피고의자본은 불과사천원이든것이 원고의 사무처리가 적당하얏슴으로 인하야 현재에는 팔십만원의재산을 만들어주엇다 그동안 피고와원고사이에는 특별히 보수를 작정한것이 업섯스나 삼십구년이나 사용하든사람이 그만둘때에는 상당한보수를 주리라고생각하엿고 뿐만안이라 피고도성공만하면 상당한보수를 주겟다고 약속하엿다한다 그런데금년일월 원고가퇴직할때에 겨우이백오십원이란 돈을 던저준다는것은 너무나억울한일임으로 너무 무리하게 만흔돈을 요구하는것도안이오 한달에이십원식 계산하야 삼십구년동안 구천이백이십원을 청구하는것이라는데 시월구일 제일회공판이개정되리라한다

監理敎傳道 講演會盛況

【西平街】 당지감리교회에서 할빈교회변성옥(邊成玉)목사를초빙하야 지난이십이일부터 륙일동안 전도강연회를 개최하엿는데 이목사는미국에서 이십년이나신학을연구한 분으로금번 강연에일반은 감화를 바덧다한다일중강연회를자미잇게하기위하야찬양대의 독별찬송가와 녹상유치원(綠祥幼稚園)보모현모란(玄某蘭)씨의아름다운독창과 오재덕(吳在德)씨의빠요링김긔린(金麒麟)씨의횡적(橫笛)이매일잇섯다하며 이십칠일에는 연사송별회까지겸하야대성황리에 맛첫다한다

丹楓이무르녹는 金剛의絕勝차저

本社水原支局主催 金剛山探勝團募集

【水原】 일만이천의긔봉준령이 천자만홍의단풍옷을 입고천하의 탐승객을부르는 세계적절승상금강산을 탐승하고저 본사수원지국에서는 수원역(水原驛)의후원을어더 오는시월구일부터 일주간예정으로 내금강외금강、해금강을 탐승하고 원산(元山)을 회유하고 돌아올금강산탐승단원을 모집한다는데 좌긔요항에 의하야 만히참가하기를바란다고한다

▲出發十月九日午後七時五十六分水原驛發 ▲歸還十月十五日午前九時六分水原驛着 ▲會費十五圓(汽車、電車賃及食費ー寫眞代는 包含치아니함 ▲探勝地 內、外金剛、海金剛의 主要勝地及元山週遊 ▲申請期日 十月四日까지 ▲申請場所 朝鮮日報社水原支局(電話一二三番)水原驛(改札係朴大得ー電話一一番) 水原南門外東光商會(電話一二六番)

新溪丁峯에 三人組强盜

【新溪】 지난이십륙일밤열두시경에 신계군고면정봉시 압고개에서 세명의강도가 나타나신계군신계면 농수리대현동(新溪郡新溪面陵水里大峴洞)에 사는 강긔언(姜基彦)(二五)이가정봉시에갓다 오는길에 달려들러무수구타하야인사불성케하고현금삼십팔원을 강탈도주하얏다는데 이급보를접한 신계경찰서 사법주임은 형사를대동하고 현장에 급행하야 정봉주재소원과 협력하야 범인을엄탐한결과 두명은 체포되고 한명만은 아직체포치 못하얏다는데 전긔범인은 피해자와가티 정봉시에서 술을먹은 자들이라한다

主人集金을消費 飮毒한靑年

【奉天】 지난이십오일오후세시경 봉천류정(奉天柳町) 송학(松鶴)이란 일본료리점에서 조선청년의 자살소동이 잇섯는데 그리유를들으면 서내랑속통(浪速通)흥안약방(興安藥房) 점원 정대욱(鄭大旭)(二三)이란청년으로 카페와요리점으로 단니면서 주인집의집금 륙십여원을 횡령소비하고 월말계산때에 그사실이폭로될것을 두려워하야 죽음을각오하고 전긔요리점에서 종일술을마시든끄테 그와가티 독약을마시고 신음하는것을 겨테사람들이 발견하고 즉시병원에 다려다 응급수당을 가하엿스나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水原 金剛山探勝團募集
▲時日 出發＝十月九日午後七時五十六分 歸還＝十月十五日午前九時六分
▲會費拾五圓(汽車、電車賃及食費)
◇主催 朝鮮日報社水原支局
◇後援 水原驛

元山 클럼비아歌手 언、파레─드 大演奏會
▲時日 九月三十日부터三日間
▲場所 元山館
◇主催 天野樂器店
◇後援 朝鮮日報社元山支局

◇運動競技◇

百餘選手參加로 自轉車競技開幕 雨天不拘、觀衆雲集

【平壤支局電話】 평양체육조합주최와 본사평양지국 후원의 전조선 자전거경기대회는 삼십일오전열시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남녀일백십여명선수의 참가로 본사주채가자 김만형(金晩炯)씨의개회사로 입장식이 잇슨후 남녀선수의 일천오백미돌에선으로 경기는시작되엿다 참가한선수들은 북으로신의주、함흥으로부터 남으로 개성、경성수원、기타각지로부터 모여들엇다 이날평양에는 천긔가 조치못하엿스나 일요일이엿슴으로 구경하려모혀든 군중은 넓은운동장내외를 빈틈업시 점령하야굉장한성황을 이르웟다

全間島─ 蹴球大會盛況

【龍井村】 두도구체육회에서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삼일전간도축구대회를 시내시민 그라운드에서 개최하엿는데 참가단체는 청년십이개단체와 소년팀□개단체로 대성황을 이루엇는바 우승은 동흥중학팀과 태양촌소년팀에게로도라갓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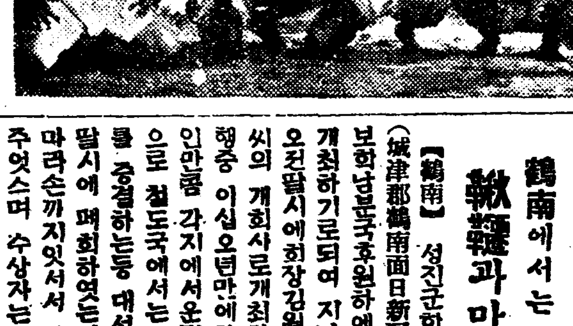
觀衆三萬餘의 三千浦脚戲戰

【三千浦】 금번추석을마지한 경남삼천포에서는 당지 음식점속옥、주류판매、삼조에서 조선고유의민족운동인 각희기술을 향상코자 남조선각희대회를 주최한바예정과가티지난이십칠일오전십시부터동십팔일오후십일시까지종래에보지못한대성황을일우엇는데 패권을정한 력사는모다이십오세미만의 청년용사들이라하며 더구나수만 관중들을놀랍게한것은김한영(金漢榮)(三一)군의비호가튼기예로서압흐로조선체육계에 명성을 떨치리라고긔대가만타하며등급씨명은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 金又二坤 二等 金漢彰 三等 朴泰根 四等 金仁圭

馬山서開催된 南朝鮮脚戲戰 最優勝은龜浦軍

【馬山】 경남마산에서는추석을마지하야 본보마산지국 후원하에남조선각희대회를개최하야 삼일을 계속한바 무려수만관중의열광리에 예선에 오십명선수를선발하야준결승까지산청(山淸)상남(上南)진주(晉州)등지의선수가 락선(落選)되고 마산(馬山)귀포(龜浦)진동(鎭東)의 삼지선수의 백열전결승전을하엿는데 최후승리자는 귀포선수 김재수(金在守)(二四)군이오이등은 마산선수(馬山選手) 리찬긔(李贊基)(二四) 삼등은 마산선수 고정호(高正浩)(三一)군과 사등에진동선수김철도(金喆道)(三二)군이라한다



◇寫眞─入賞된四選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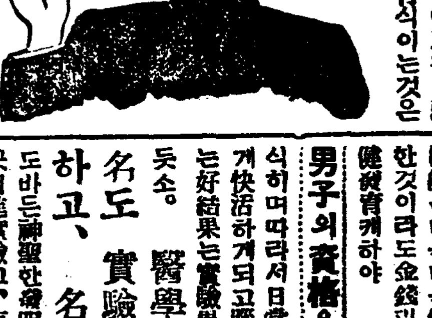
鶴南에서는 鞦韆과마라손

【鶴南】 성진군학남면일신동(城津郡鶴南面日新洞)에서는본보학남분국후원하에추천대회를 개최하기로되여 지난 이십사일오전팔시에회장김원회(金遠會)씨의 개회사로개최하고 경긔진행중 이십오년만에하는 첫운동인만큼 각지에서운집하는 관중으로 철도국에서는 쟁차삼사대를 증결하는등 대성황리에오후딸시에 폐회하엿는데 당일은또 마라손까지잇서서 더욱 흥미를 주엇스며 수상자는 아래와갓다한다

◇鞦韆大會 一等禮洞金白麟 二等龍谷金蓮玉 三等日新南松女 四等閑岡李玉順 五等日新沈俊心
◇마라손 一等日新崔鎭俊 二等日新李宗春 三等晩春崔日順 四等松亭金衡石 五等日新許鳳明

馬山拳鬪 試合盛況

【馬山】 경남마산권투구락부주최인 아마추어 권투시합은오는월삼십팔일밤여덟시에 동구락부회관에서 부장김상수(金相洙)(三)씨 주심과 김경식(金□□)씨부심으로 홍백군대시합을 개최하엿든바 승리는홍군에 도라갓다는데 마산에서 처음보는 권투시합인만큼 관중이조수가티밀리어 대성황을 일우웟섯다고한다

憂鬱靑年=快活히된다
生殖器健全發育
五分間內에 物理療法의作用實現
스태미나 去勢 한숨、배숨이 漸漸衰退되고、말마다去勢하면大氣가업시되오、압뒤가치弱한소리에도놀래지안흠만큼神經이過敏하게되오。人間男子도生殖機能이男性의特徵인進取活潑의元氣、腦力發揮力의根元인것은、進步된醫學(內分泌)學上闡明이된것임으로去勢的으로無氣力하게遺精陰萎하지안토록、弱少生殖器를强健發育식이는것은
直接物理療法 을行한숙、目前에곳眞空吸引力에依하야筋肉을緊張식히고、活力을喚起하야、漸次發育促進의現象을뵈인同時에微妙無比의연준수作用을發生하야、不自然한行爲、過房의害로因한性的神經衰弱機能障害、遺精、夢精、早漏、陰萎、精力減退、彎曲等을回復식히고機能을더욱더욱健全히하여弱少한것이라도金錢과時間을덜고强健發育케하야
男子의資格을 훌륭히完成식히며따라서日常氣分도明朗하게快活하게되고腦力을發揮식히는好結果는實驗界에만흔讚辭올듯소。醫學博士六十名도 實驗證明推奬하고、名譽大金牌도바든神聖한發明品인本器를、곳自進實驗코、更生的으로洋洋한春海가트有望한人生에出帆합시다。

人生의天賦的幸福을다하게한것뿐난안이라 處世成功上重大 한意義를認識하고잇스나藥으로는섯게具體的效果가뵈이지안흔弱少한것도嶄新한物理治療法의世界的發明品으로서海外에까지好評인 日獨佛專賣特許 ホリツク眞空水治器 를一日一回式輕便히使用해서自己가秘密히
眞空水治器金六圓送料內地三十錢、植民地六十錢代金引換은十五錢增送또包至이곤어지자수곧자기가秘密히形成하는專賣特許호리스구包裝安全四圓送料內地十五錢
無料送呈 非賣品圖入說明書 葉書申込卽時＝密送
回가짜잇으니반다시ホリツク의文字(商標)에注意하시압
東京市芝區電話芝三一三一 神谷町十八振替東京七三九七 東京 新療法硏究所

十月一日낫부터三日間 十月一日은祝日임으로晝夜三回興行 十二時。三時半。밤七時半 普通二回 每日 낫밤一時七時半始映
大階上十五錢料金階下十錢均一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喜活 靑春이온다 全十卷 찰스 로자스氏 후란세스데이嬢 主演 이야참痛快하고興味百%
松竹키네마社超特作品 現代名畵 靑春의꾸는꿈이 全十卷 江川宇禮雄 齋藤達雄 田中絹代 主演 이야말로여러분게꼭보아두서야할이篇빡보고드르시라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一七五五

本社直屬劇團 新舞臺西鮮巡廻 平壤秋期訪問公演은連夜正刻前超滿員으로近年興行界最高記錄突破二十八日밤까지로(八日間)閉幕
◇九月二十九日밤부터(二日間)◇ 舊安州特別訪問公演 連鎖劇上演、藝題每日交換 安州劇場에서
◇十月一日밤부터(二日間)◇ 定州訪問公演 連鎖劇上演 定商劇場에서
◇十月三日부터(短期)◇ 宣川訪問公演 宣川劇場에서
不遠新義州、安東、奉天、撫順新京訪問公演이잇슴니다
新築中 團成社 電光九九五九番

天下無敵의名畵週間! 九月二十五日부터超特別大封切 유社超努級全發聲一九三四年代表作品! 아─놀드팡그博士總指揮! S·O·S氷山 全九卷 名匠데이가네드氏監督作品! 레니리프엔슈탈孃主演 로드라록크氏助演 그린란드의極地에展開하는壯嚴한氣魄은近代人의凜烈한昂奮이다白銀의大氷山가相擊하는곳! 大自然의狂風이蹶起하는곳에도人類의爭覇와冒險은繼續되다探險秘史의一大劇詩
유社獨特全發聲連續冒險篇 猛獸王國 全二十四卷 中六卷上映 猛漢동대이라─氏主演 ─산의冒險과奇怪한로맨쓰로點綴된連續有史以來最大冒險戰慄篇
大都映畵社特作連續篇 靑春時代꼿갓흔아가씨後篇 學窓로맨쓰 女學生로맨쓰 主演 琴絲路讓 中野洋二氏
優美館 貫鐵洞 電光三九五

九月二十七日낫부터 ─日曜日祝祭日은三回興行 一九、三三年度佛蘭西藝術賞獲得의名畵佛國반탈데다그製作 쥬─르、루나─르原作 少年 닌징 一名紅髮 全十卷 哀膓篇 쥬리안、듀베베、脚色監督 天才少年名優로벨、리난君主演 南佛어느平和한마을! 世上에모든것은따스한봄빗을따라무럭무럭자라것만可憐한『닌징』만은왜이다지도기를못펴고자라는지! 남가티愛情을못밧고지나는『닌징』─에기를기르시는아버지、어머니、그리고父母를모시고잇스면서남들에게큰敎訓을드릴것입니다少年映畵(完鮮篇!) M·G·M社超特作 삽、웃드氏、監督 靑春의戱弄 全九卷 구락크、캐불진、하─로主演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二

三南水害義捐金品

▲本社接受＝三十日正午까지整理分▼

現金累計 三萬六千五百八十六圓二十九錢

物品累計 七萬九千六百四十五點

金命守、徐允明、李學根取扱分

大阪府中河內郡楠根町稻田 (本社大阪支局經由分)

一金三十三圓二十八錢

內譯

二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五十三錢 五十錢

金命守 徐允明 李學根 張且介 沈學甲 李東甲 辛容宇 裵日石 金在右 裵鍾祚 朴源根 金長龍 徐鳳允 裵鍾震 金在中 金貴壽 具萬泮 薛徵澤 朴周益 辛昌植 林永道 姜晩基 李鳳俊 金鍾赫 金釗岩 李鍾社 姜栗伊 金命述 金吉錄

五十錢 …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十五錢

柳昌萬 金鐵同 鄭在鳳 金錫克 金春石 吳京相 李在石 金甲生 李壽龍 方二權 姜相熙 吳永奉 金吉用 李成植 金載洪 辛容相 李一道 黃得珠 黃道潤 甘周生 甘周植 李周漢 金台岩 金禹福 梁且時 李縿燁 李永在 金丙周 黃二淵 辛根植

東大阪消費組合

大阪市東成區猪飼野東八丁目二三

一金十圓四十五錢

內譯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二十錢 …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朴東鎬 金在默 金鍾煥 權占述 姜占浦 李享玉 琴七鉉 李卿熙 金興燮 權相直 李時永 權泰益 朴永鎬 金奎澤 金基五 金英鎭 全相寅 張書發 朴魯龜 李仲達 金相植 全相昱 金環洛 孫景河 金鍾嗣 朴秉祥 琴相達

十錢 … 十錢 五錢

權相鎰 李日守 朴璣鎬 金首祿 朴相熙 李益熙 李東宰 李炳朔 鄭觀達 崔寧用 秋士白 金占根 李鍾永 張在守 葛且鎬 李俊洛 權周浩 金鍾稷 李鋌祚 葛石泰 全秉植 車完洛 李甲煥 辛世述 金敬正 朴來甲 全仁漢 金明漢

大同消費組合取扱分

(本社大阪支局經由分)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中二丁目

一金三十五圓

內譯

二圓 一圓 一圓 十圓

本組合 金應斗 曺秉一 金鎭坤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朴英俊 朴魯聖 姜泰均 章東植

五十錢 … 五十錢 五十五錢 三十錢 … 三十錢 二十錢 …

金盤石 權仁同 金玉龍 成昌文 無名氏 金月城 林武一 愼鏞俊 河甲祚 金權柱 林千一 李上甲 延佑根 金邦佑 李炳文 白善奎 李憲祚 朴有文 吳女史 全順文女史 曺漢聖 梁麒五 金建柱 黃鐵喆 金南建 黃斗植 愼鍾洙 文昌鉉 李順龍 崔秀潤 鄭敎春 李石地 愼三綷 沈南順女史 權善彦 金斗南 李鍾駿 李章浩 朴正煥 李相根 姜泰俊 鄭又石 梁述伊 權永奇 鄭少娣

二十錢 … 二十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十錢 … 十錢 五十錢 十五錢 二十五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金成開 無氏名 朴尙汝 金德元 李日滿 尹明善 金敬三 李述寬 宋和福 金元日 愼容綷 愼重祚 朴別男 李守萬 金興七 張日滿 李海龍 金圭宗 全聖元 張性明 郭福龍 朴南敎 梁致淑 高在恒 金辛守 宋平用 宋己鳳 金在奎 金守贊 李七用 無名氏 金東興 金鳳鉉 柳命壽 張璣宅 崔乙生 金鍾根 李斗滿 愼琪容 尹永玉 郭鍾模 金東喆 金大石 姜泰勳

大同消費組合婦人會分

(本社大阪支局經由分)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中二丁目

一金十圓八十七錢

內譯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 三十錢 二十錢 … 二十錢 十錢

최유희 리덕수 김봉덕 임여준 김순금 문인순 서선이 리또난 신악이 김계순 김필옥 최창흥 박상조 임일금 김복이 용윤도 정에식 김일색 최상달 김옥집 강금이 박…이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五錢 十二錢 十錢 … 十錢

죠일색 성진찬 하봉선 리달준 신귀득 안옥향 박복순 임순금 김가순 김금이 전금준 길순단 박우양 서정의 김쌍옥 서봉조 신예양 리정순 죠봉애 신황산 오소순 리선이 정순애 추본홍

槿花共榮會取扱分

(本社大阪支局經由分) 大阪西淀川區

一金四圓

內譯

五十錢 二十錢 三十錢 二十錢 二十錢 五十錢

金榮基 趙三奉 金在根 金甲得 安仁守 裵正德

三十錢 三十錢 五十錢 三十錢 二十錢 四十錢 十錢

崔敬允 朴會慶 高相福 黃庚述 尹大赫 南園 無名氏

城東舘朝鮮映畫大會時取扱

(本社大阪支局經由分) (總額은九月廿七日發表고內譯만今日發表)

二圓 阪鮮殖産組合幹部一同

四圓十五錢 同會場에서帽子돌리어收入分

針久米製針工場職工一同

大阪市東成區中本町五ノ二六 (本社大阪支局經由分) (總額은九月廿七日發表고內譯만今日發表)

內譯

五圓 一圓廿錢 一圓 一圓 一圓 一圓 五十錢 … 五十錢 三十錢 … 三十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石脇吉之助 前田明治 金敎秀 李陽浩 李士龍 金福祚 山崎福藏 岩木龜次郞 四方政正 增田又市 曾我虎造 船曳五郞 金昌植 金思亭 金在秀 金在鎔 安致國 權憲國 李東錫 山崎福三郞 村尾泰藏 石脇靜一郞 前田良一 前田好信 古本銀吉 中西米藏 三木喜民 澤萬壽雄 東井久吉 鳥飼文夫 鳥羽ハルヱ 山縣節治 尹性任 金利淵 金且善 金昌謙 鄭順富 張吉子 山本一子 山田久枝 築伊藤榮

二十錢 … 二十錢 十錢 … 十錢

佐佐木澤乃 鈴木津路子 東井フサ子 米田花子 吉村岸子 藤井靜子 中西芳夫 豊島太郞 中西米度 吉田學 國領秀雄 北村建治 黑川ヨネ 藤井茂次郞 馬場君子 吉田梅子 梅澤藤江 大山峯 中島信義 若林秀雄 井筒末雄 佐佐木茂 前田義明 金甲淵 金斗鉉 金思興 李昌順 李在順 小倉正治 坂本ヤスヱ 瀨川久子 辻井花子 能勢廣一 松江國一 岡田フミ子 田中ハマ子 森下信次郞 北川義雄 藤田 勝田ヱイ子 木村浩 竹本松男

朝鮮人同志會等一同

大阪府中河內郡巽村 (本社大阪支局經由分) (總額은九月廿七日發表고內譯만今日發表)

內譯

二圓 一圓 一圓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同志會 朴連夏 張長玉 崔天洙 玉玫兒 金洪基 玉龍九 全相晃 李濟雨 吳東鎬 徐長玉 陳吉洙 金千福 吳命根 申平山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大阪府下中河內郡巽村大地)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崔鳳順 許過石 黃他官 崔相喜 崔容泰 金鍾國 徐炳輪 林德明 崔昌秀 金厚敎 元祚龍 中村市郞 車允鳳 金基沃 宋煥振

五十錢 … 五十錢 四十錢 四十錢 三十錢 … 三十錢 二十五錢 二十五錢 二十錢 … 二十錢 五十錢 … 五十錢 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大阪市東成市生野田島町) 一圓 一圓 五十五錢 五十錢 … 五十錢

鄭樂三 郭宗運 金斗培 車石基 丁北實 文成基 張志永 郭聖基 梁潛容 趙月峯 車聖煥 盧宜鉉 羅正用 柳重錫 張萬龍 孫璜周 張三龍 車八處 尹乙生 宋寬興 金本洙 鄭永基 金判述 金承鉉 朱敬勳 朱海魯 崔大貴 宋正孝 嚴性心 孔甲烈 具基俊 朴永奎 梁奉春 鄭東錫 (巽村四開) 宋光孝 薛成玉 金大元 黃明三 黃永化 姜一峯 成平淳 金成澤 高翊連 金龍圭 金元秀 高光福 吳明奎 吳柱鏞 洪基奐 權永運 金聖洙 李奉化 金公金 金伊泰 金昌南 鄭世權 黃順玉 盧再植 鄭柱生 金正均 朴七龍 梁南宜 楊相龍

五十錢 … 五十錢 三十錢 … 三十錢 二十錢 … 二十錢 十錢 … 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乾安次郞 田中卯之助 作馬淺吉 金至洪 野澤末吉 草野梅吉 吉本才一 吉村廣太郞 平岡國松 玄奉圭 朴利玄 尾垣德次郞 石井治三郞 平岡種吉 石井輝一 朴成林 鄭門實 田中龜吉 野澤建一 野澤由松 田中鶴次郞 趙甲伊 玄武京 玄公南 文子奉 朴壽萬 黃永日 白甲吉 梁南泰 梁南玉 靑京煥 文泰興 文宗元 尹安宗 趙炳洙 趙京三 吳二祚 濱名セイ 成平吉 吳正烈 李連祚 乾由松 龜井宇三郞 尾垣政雄 尾垣繁次郞 前田政吉 中野孫兵衛 金龍達 孫基石 文弼昊 文達四 金鳳煥 姜三文 文琮錫 金亥吉 尾垣卯吉 山田敏雄 山本太郞 李柱洪 成永圭 中西龜太郞 村上淸太郞 松浦延太郞 辻本伊造

在大阪朝鮮有志婦人一同

大阪市東淀川區長柄東通一丁目 (本社大阪支局經由分)

衣類二百十六點 (總額은九月廿七日發表고今日內譯만發表)

內譯

六十錢 五十錢 五點 六點 二十三點 四點 十三點 一點 十四點 四點 三點 二點 七點一圓

金喆愛 董金順 李蘭上 高贊姬 申永植 金永伊 金粉伊 金信松 千姓女 朴甲順 朴成今 李心德 徐景玉

五十錢 四點十五錢 三點 一點 一點 二十錢 二點 三點 十五錢 四點 二十七錢 四點 一點二十錢

李南術 金德子母親 洪福順 金福周 鄭順伊 朴北桂 朴北煥 鄭永岳 鄭富姬 朴点順 權玉粉 李甲順 周小子

九點 四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二十錢 十五錢 十錢 五十錢 二十錢 五十錢 二十錢 五十錢

李慈君 李明順 金琴女 金喆玉 金厚福 具二粉 李末蘭 崔西南 趙宗善母親 金種裕 李粉伊 裵嚴全 鄭茂得 安点伊

十錢 六點 四點 十錢 二十錢 二點 四點 十點 四點 三十錢 五點 二十錢 三點

朴相淳 宋光術 李乙善 姜又任 申順粉 吳順外 李貞淑 金光端 馬仁鄕 姜玉雪 金蓮善 金呼出 延正玉母親

本社新興支局經由分(第四回分)

一金三圓八十二錢 (本報東上分局發送分)

內譯

五十錢 十錢 四十錢 (元豊面耶蘇敎會) 十錢 五十錢 五十錢 二十錢 十五錢 五錢

金奎鎭 송종벽 성치선 리용인 김병헌 리연숙 리히철 함정렬 박씨

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十錢 十錢 十錢 五十錢 十錢

라춘식 김찬금 한순남 함양준 황정식 리영회 김천금녀 허명월 정인보 전히수

(送料十八錢除殘)

本社安州支局經由分

一金十六圓六十八錢

內譯

衣類七點

十三圓七十四錢 安州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二圓四錢 安州安息敎人一同

一圓二十五錢 衣類七點 安州少年新川團員一同

本社鳥致院支局經由分

一金二十一圓五十二錢 (送金料八十八錢除殘)

보리쌀八斗六升

內譯

一圓 朝鮮日報社鳥致院支局

一圓 鳥致院居住中華人一同

五十錢 五十錢 五十錢 三十錢 三十錢 十錢 十錢 二十錢 … 二十錢

金萬五 帆足昌夫 朴基守 崔章煥 金在聲 黃奎熙 金演榮 以下慶尙同友會員一同 錢東起 李濟鳳 朴東鎭 成善慶 金宰斗 金基年 朴丙鉉 朴明西 金守成 金海權 趙興西 崔敬三 全雄哲 申相純 卞成玉 孫聖學 成百善 李且介 權珍五 高俊明 張道俊 權泰圭 玄扇子 朴永善 金夏俊 孫百萬 朴明俊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二十錢

孫致三 車鍾云 金聖容 金德祚 李聖擇 全柱漢 孫基錫 黃致權

보리쌀八斗六升 (淸州郡江外面西坪里)

李又範 郭憲鍾 金南喆 金一煥 金在龍 朴魯春 洪在璣 洪鍾玉 沈成燮 金根植 金基元 李壽昌 安用甫 成主山 金順明 洪春玉 嚴明山 沈東燮 權金孫 金敬植 金仁喆 尹長出 金昌成 金德在 洪承文 鄭大倫 權金錄

高東福 沈昌燮 高寬平 金昌淳 鄭月東 申貴奉 洪在先 金元植 柳錫鎭 蔡權奉 孫大同 李相律 李承傑 李相哲 金和順 高春三 孫大勝 金憲植 金興喆 洪順喆 尹基出 金自實 盧在遠 高重燮 惠錫夏 郭應鍾

現金小計 一百三十五圓六十二錢

物品小計 二百七十六點

探偵小說

艶魔 (94)

徐東山 作
金奎澤 畫

실人족(失足)(6)

영호가 서광식이를 잡갓으로 밋헤 깔고안저 일변 포켓속에너헛든 고무주머니를 끄내어 크롤·포름 까-제를 사용하려고할때다.

영호는 싸홈에 정신이팔녀 동뒤 즉 영호자긔가 오든것과가튼 방향으로부터 하롱자동차한대가 달녀와 임이 그엽헤 서머믈은것을 아지못하엿다. 하롱자동차에서는 두사람의 괴한이 뛰여내려 서광식을 뎌허놓으고 잇는 영호의 동뒤로 달녀들엇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동류가 껴눌닌것을 먼빗트로보아서도 알수가 잇섯든때문이다 몰의의 습격을바든 영호는 방비할결을을 가지지못햇다 그는등뒤에서 목을 졸느고 매달닌괴한을 업어넘기려 벌덕 일어섯스나 그와동시에 따러이러선 서광식이의 주먹에 어퍼커트를한대 받즈케 어터마젓다.

그리하야 그는 몸의 균형을일코 뒤로 넘어지는것을 서광식이가 그대로 깔고안고 두명의 괴한이 머리와 팔을눌넛다.

서광식이가 다시 엽헤 흩녀잇는 고무주머니에서 영호가사용하려든 크롤·포름 까제를 끄내어 영호의 코와입을 덥헛다.

미-라를 캐러갓다가 미-라가 된다는 셈으로 영호는 서광식을 잡으려고 준비해가지고간든 마취재에 되려 가긔가 정신을 잃허바렷다.

영호가 완전히 늘어진것을 보고 그들은 일어섯다.

「망할자식! 생기기는 얄팍하게 생긴자식이 웬 아구심이야!」

서광식은 옷에 흙을 털면서 두덜거린다.

그가 악가 떠러트린 피스톨을 차저 간수하는 동안에나중에온 두명의 수하는 영호를 떠메어 하롱자동차에 실엇다.

「우리가 족곰만 늣게왓서도 큰일날번햇지?」

「그-럼…자네는 더기다리자는것을 내가 어서 가보자고 안햇나?…다 일이잘될라면 그런법이야…가지고왓서요?」

그자는 서광식이더러 이러케뭇는다

「그자식이 아니가지고 왓지 아마……글세 돈을 내노라니까 무어라고 긴소리잔소리를 늘어놋는단말이야…… 그래 따구를 한대 갈기려다가 그만……그것참 망신을 하라니까……그것도 아마 백영호놈이 모다 꾀를 가르켜준거야!」

서광식은 여전히 두덜거리며 회생모자를 버서바린뒤에 운전대에 운전수와 가치타고 두명은 집차에 옮나탓다.

「죽은게도 발버둥 떼어먹으랫단다 기왕가지고온것이니 수족을 꽉꽉 묵고 부대를 덧허씨워라」

서광식은 이러케 명령을하엿다.

하롱차는 머리를 돌니어시내로 향하야 달어낫다.

이떤 허철과 영호의집

허철은 세시가 되기를 눈이빠지게 기다렷다. 문밧게서 바스락소리만나도 영호가오나 그리찬호면 영호가실수를하여 일이 글너저가지고 악당들이 습격을 해들어오나 가삼을 조엿다.

그러나 세시가 되도록 아모소식도 업도업섯다.

그리하야 그는 홈내어 고집쓰고 야단야단하는 병석의 부친을 업고나가다십히 자동차에 태웟다.

무슨 괴변이나고 못는데도 그저 큰일이 날테니 당분간 어데로 피신을 해야한다고만 대답하엿다.

허철이에게는 대단한 용기와 과단성이 필요한일이엿지만 어쨋거나 그날밤으로 무사히 인천월미도호텔에 피신을하엿다.

또 영호의 집에 남어잇은 사람들은 속을 조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웟다.

날이 훠엿이 밝도록 영호가 아니도라올때에는 장수를 일흔병정들가티 기운이빠지고 근심들하엿다.

그중에도 향초는 여간만걱정을 아니하엿고 김서방은그의법식대로 뛰여나가보겟다는것을 오목이와 상준이가 각각으로 붓잡어노앗다.

밝는날 원종일 기다렷스나 역시 소식이업다. 상준이가 세롱내 석양때 허철의 집을가보니 집안은 텅비이고 하인놈만 남어잇섯다 를으니까 어제밤에 영감님들모시고 시골로 갓다는것이 그들의 대답이엿다.

남이저물고 밤이깁헛다。영호가 나간제 만 일주야가되엿다。

불안과긴장에싸힌 밤은 매우깁허갓다 밤두시가지나뒤다 아레청을 직히느라고 현관에 직히고잇든 김서방은 팔그다하는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엇다。

현관문의 쇠난홍이 움직이는것이다.

九月三十日(日曜)

◇午後六時 童話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가을의感想 金仁泳

◇同七時三〇分 音律 靈山會像中 玄琴 趙彝淳 洋琴 閔完植 大笒 金永根 細笛 高載德

◇同八時 俗謠 一、碩我歌 二、愁心歌 三、孔明歌 四、배다래기 鄭錦紅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蕭湘八景 二、沈淸歌 宋萬甲 鼓手 韓成俊

◇同九時 獨唱 一、노래가업스면……유-만作曲 二、주의품안……뻿케르作曲 三、오래十字架……빼나-드作曲 四、어둥이업네……멘델스존作曲 五、주의뜻을일우소서……스템빈스作曲 六、주의음성……이네스드·롤作曲 피아노伴奏

十月一日(月曜)

◇午後〇時五〇分 時調와俗謠 一、時調와男唱지름 二、遊山歌 三、제비歌 四、난봉가 文山紅 李世花

◇同六時 童話 코긴공주 朴晃

◇同六時二五分 產業ニユ－ス

◇同七時三〇分 講演 朝鮮簡易保險創立五週年에際하야 韓相龍

◇同八時 라듸오、드라마『來日은快晴』全四景(配役) 永植……金昌鎬 惠子……車紅女 李貞淑 下宿主人마님……尹星하 勝哲(惠子의父)……尹 民樹(永植의친구)…… 李瑩 保險勸誘員……方春山 其他職工多數

◇同八時三五分 講談再生 尹白南

◇同九時五分 俗謠 一、새타령 二、興打鈴 三、방아타령 四、梁山道 五、漢江水打鈴 六、노래가락 七、唱夫打鈴 林明月 伽倻琴 李日善 奚琴 金奎奉

十月二日(火曜)

◇午後〇時五分 俗謠 一、놀냥 二、四巨里 三、中巨里 四、京四巨里 五、방아타령 金花容

◇同二時 常識講座 民法上損害賠償에對하야(一) 尹元上

◇同三時 野球試合實況 京城體育데-中等校決勝戰 一京城運動場으로부터中繼一

◇同六時 童謠獨唱 一、가을 二、기차 三、메밀꽃 四、해변의少女 五、개암이 六、새보는노래 七、허재이 八、코스모스 劉德順 伴奏

◇同六時二五分 家庭講話 生活改善과色服(一) 李貞圭

◇同七時三〇分 講話 兒童育成에對하야(一) 黃祐燦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東風歌 (春香歌中) 同 自歸傳 (沈淸歌中) 鼓手 池龍九

◇同八時二五分 和講 李景雄

◇同八時五〇分 (大) 吹奏樂 一、交響樂「밤의水都」第一樂章 港口의밤 第二樂章 물우에 第三樂章 遁走曲과天主閣 (나) 奧雅한行進曲 二、두개의小品 (가) 勇壯한行進曲 (나) 行進曲 大阪吹奏樂團 指揮와 作曲 原明朗